

# 귀 막고 눈 막은 사측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지난 5일 인사평정기준 개선안 전 직원 설명회가 열렸다. 노조는 그동안 임금과 연동하는 인사평가는 줄곧 반대해 왔고 현 24대 노조도 같은 입장이다.

그러나 사측이 발표한 인사평정기준안에는 S, A 등급 등 고성과자에게 성과상여금을 기존 1200%에서 최대 1400%까지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담겨 있었다.

또한 노조가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는 '직무수당'도 사측은 이번 인사평정안에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 직무수당 신설은 임금체계에 변화를 주는 요인으로, 분명한 노사 '합의' 사안이다.

사측은 앞서 직무수당 신설에 대해 노조에 구두로 의견을 물어온 바 있다. 이에 노조는 현재 불법으로 운용되는 시간외수당 정상화가 더 중요하다며 분명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직무수당을 이번 인사평정 개선안에 포함시킨 건 분명히 사측의 신의칙 위반이고 노조 기망 행위이다.

노조는 그동안 회사의 의견에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해 왔다. 하지만 사측이 노조의 선의를 당연한 듯 여기는 걸 넘어 악용한 데 당혹감을 느낀다. 합의하지 않은 수당을 문제제기하자, 사측은 "확정되지 않은 검토사안"이라며 황급히 말을 바꿨다.

노조가 임단협에 정신이 없는 이 시기에, 알뜰한 속임수로 합의한 적도 없는 수당 조건을 인사평정에 끼워 넣으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노조는 사측의 이같은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 한번 임금과 연동된 인사평가 제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

2026. 02. 09.